

# 독일어 명사구의 생략현상에 대하여<sup>1)</sup>

이해윤 (서울대)

## 1. 들어가기

인간의 언어사용에는 다양한 원리들이 사용되며, 이를 규명하는 일이 언어학의 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예로써 가급적 불필요한 혹은 반복되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는 ‘경제성’ 원리를 들 수 있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 (1) (a) Das Gold<sup>1</sup> wurde von einem Drachen<sup>2</sup> bewacht. Der Lindwurm<sub>2</sub> tötete jeden, der den Schatz<sub>1</sub> erobern wollte.  
(b) Das ist Markus<sup>1</sup>. Er<sub>1</sub> ist Linguist.  
(c) Rom hat mir sehr gefallen. Paris \_ \_ weniger \_ .

예문 (1)(a)의 두 번째 문장에 나타나는 명사구들(der Lindwurm, den Schatz)은 앞 문장에 나타나는 명사들(ein Drachen, das Gold)의 다른 표현형태이며, (1)(b)에서는 대용어인 대명사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문맥상의 환경이 허용한다면 우리는 (1)(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생략할 수도 있다. 특히 생략의 경우, 우리는 구어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경제성 원리에 따른다면 생략된 요소는 의사소통시에 불필요한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 본 논문은 1999년도 독일학 연구소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2) (a) (Ich hatte gerne) ein helles (Bier), bitte.  
 (b) (Hast du) gut geschlafen?

본 논문은 언어의 경제성 원리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생략현상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Lappin(1996)에서 제시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략구문이 주어졌을 경우, 독자나 청자로 하여금 적절하고 체계적인 의미해석을 가능케 하는 절차나 시스템은 무엇인가?” 답변의 구체화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생략현상들 중에서 등위 접속문에서의 명사구 생략에 한정하여 다룸으로써 구체적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장들이 등위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는 등위 접속문에서 생략현상이 일어나는 유형을 그 방향에 따라 구분한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 생략이 일어나는 순행 생략문, 첫 번째 문장에서 생략이 일어나는 역행 생략문, 그리고 양쪽에서 생략이 관찰되는 쌍방 생략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2)</sup> 본 논문에서 논의할 생략문들은 순행(順行) 생략문 유형에 해당되는데, 다음 예에서 보듯이 동사 앞에 위치하는 명사구는 그 문법적 기능에 상관없이 생략될 수 있다.

- (3)<sup>3)</sup> (a) Peter liebt Spinat und \_ mag Karotten.  
 (b) Den Staatschef begrüßt der Kanzler und \_ befragt der Reporter.

2) 다음은 첫 번째 문장에서 생략이 일어나는 逆行 생략문을 제시한 것이다.

- (i) Karl soll vier \_ und Maria will drei Brote kaufen.  
 (ii) \*Franz bestellte zwei \_ und der Kellner brachte ein Ei.  
 (iii) \*Karl \_ vier Brote \_ und Maria soll drei Kuchen kaufen.

위의 예에서 보면, 역행 생략문은 순행 생략문과는 달리 그 생략가능성을 순전히 표층적 모습에 두고 있다. 즉 동일한 형태론적 모습과, 뒤에서부터의 순차적 생략이라는 제한만이 가해진다.

- 3) 예문 (3)(b)은 Günther et al. (1993: 316)에서, 그리고 (3)(c)는 Klein (1981: 63)에서 따옴.

- (c) Der Suppe fehlt das Salz und \_ täte weniger Wasser gut.

또한 순행 생략문에서는 명사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성분들이 생략될 수 있다.

- (4)<sup>4)</sup> (a) Der Mann liest die Zeitung und die Frau \_ ein Buch.  
 (b) Peter möchte Maria bestimmt nicht heiraten, aber er wird \_.  
 (c) Die Frau schenkte Jutta ein Halstuch, und der Mann \_  
 \_ eine Perlenkette.  
 (d) Du kannst gern an der Sitzung teilnehmen, aber ich würde sagen, du brauchst nicht \_.  
 (e) Es findet eine Feier statt, aber ich weiß nicht wann \_.

예문 (4)에서는 동사나, 동사구, 또는 동사와 다른 요소 등이 생략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분석은 Lee(1998)에 제시되어 있다.

## 2. 기존 연구들 및 문제점

기존의 연구들은 생략현상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설명이나 이론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생략현상이 일어나는 구문에 따른 부분적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의 (4)에 제시된 예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사생략 ((4)(a): 공백화현상, gapping), 동사구 생략 ((4)(b): VP 생략현상), 공보족어 대응현상 ((4)(d): null complement anaphora), 슬루이싱 ((4)(e): sluicing) 등 다양한 용어설정 하에 각기 상이하게 다루어져 왔다. 위 (3)에서 보여주는 명사구의 생략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van Oirsouw(1987)의 삭제이론과 Sag et al.(1985)의 복사

---

4) 예문 (4)(e)은 Klein (1993: 779)에서 따옴.

이론을 들 수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설명 및 문제점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2.1. 삭제이론

van Oirsov(1987)은 두 등접문들이 보여주는 표층상의 선행관계에 의존하여 생략될 수 있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생략을 위한 일반도식은 다음과 같다.

(5) [s ... X Y] conj [s ... X Z]

Y와 Z는 상이한 구성성분이고, ...는 동일한 표현들이며, X는 생략될 요소의 위치를 표시한다.

위의 도식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생략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로는 '삭제'라는 장치가 언어학적으로 부적합한 도구라는 점이다. 삭제는 60년대에 유행했던 변형문법에서 도입된 일종의 변형규칙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간 여러 연구들에 의하여 변형이론이 부정되고 최근에는 새로운 이론의 전개로 이어져 왔다. 둘째로는 비록 그 장치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삭제 장치에 의존한 설명은 생략현상의 의미론적 영역에서는 설명력을 잃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6)<sup>5)</sup> (a) Ein Mädchen stand an der Ecke und \_ winkte mir auf der Straße zu.

(b) Petra gießt ihre Blumen und Maria \_ auch.

(c) \*Die Wut packte Erwin und Klaus \_ sein Messer.

그에 따르면 각각의 빈자리에 형태적으로 동일한 요소, 즉 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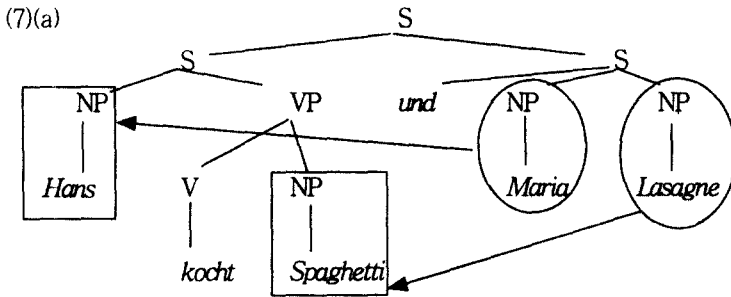
---

5) 예문 (6)(a)은 Klein (1985: 8)에서, 그리고 (6)(c)는 Kohrt (1976: 102)에서 따옴.

Mädchen, gießt ihre Blume, packte 등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나아가 의미적으로 동일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상의 동일성이 의미상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즉 위의 예문들에서는 모두 생략요소와 이에 상응하는 선행어들간에는 의미적 차이가 나타난다. (6)(a)에서 생략된 ein Mädchen은 앞 문장의 명사구와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해석을 받고, (6)(b)에서 생략된 gießt ihre Blume는 앞 문장의 동사구와는 달리 대명사 ihre가 Petra 혹은 Maria를 지시할 수도 있다. 끝으로 (6)(c)에서는 관용적으로 쓰인 앞 문장의 동사 packte와 일반적 의미로 쓰인 두 번째 문장간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의 도식 (5)는 이런 차이점을 전혀 설명할 수 없어서 촛스키가 제시하고 있는 언어이론에 대한 기준들중 관찰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2.2. 복사이론

Sag et al.(1985)에서는 의미해석에 중점을 두어 통사구조상에서의 복사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등위 접속문에서 생략문은 완전한 문장인 선행문에 각기 상응하는 위치로 복사되어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구조는 Hans kocht Spaghetti und Maria Lasagne 예문에 대한 복사이론 적용과정과 이에 따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b) und'(kocht'(hans', spaghetti'), kocht'(maria', lasagne'))

이 이론은 여러 점들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주어-동사의 통사적 일치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8) (a) Wolfgang geht in den Naturkostladen, und seine Eltern  
\_ in einen Supermarkt.  
(b) Ich gehe heute ins Theater, meine Frau \_ aber ins  
Konzert.

위의 복사이론에 따르자면, (8)(a)에서 seine Eltern이 Wolfgang의 자리로, (8)(b)에서 meine Frau가 ich의 자리로 각각 복사되어, 각기 seine Eltern geht in einen Supermarkt와 meine Frau gehe aber ins Konzert라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생성된다. 즉 의미적 측면에 중점을 둘 경우, 통사론적 문제점들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다음에서 보듯이 복사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하여 의도되지 않은 문장해석을 가져올 수도 있다.

- (9) John schenkte Maria ein Buch und Susanne eine Schallplatte.  
(10) (a) John schenkte Maria ein Buch und (John) (schenkte) Susanne eine Schallplatte.  
(b) \*John schenkte Maria ein Buch und Susanne (schenkte) (Maria) eine Schallplatte.

즉 예문 (9)는 (10)(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 모습으로 해석을 받는다. 그러나 위의 복사이론에 따르자면 (10)(b)에서 처럼 동사와 목적어가 생략된 모습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 디폴트 상속이론

본 장에서는 생략현상에 대한 소위 '디폴트 상속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Levelt(1983)의 '자기수정(Selbstkorrekturen)'에 대한 연구와,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표상이론(Wissensrepräsentationstheorie)'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수정문은 화자 스스로 잘못 발화한 표현을 침사 등의 수식구 삽입후 의도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나타내는 구문이다. Levelt(1983)에서는 자기수정구문과 동위 생략접속문간의 구조적 유사점에 착안하여, 후자의 경우도 전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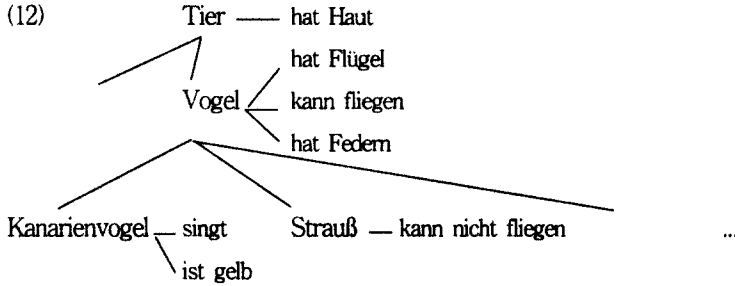
- |      |   |        |
|------|---|--------|
| (11) | (a) John bought... uh ... stole a bike  | :자기수정문 |
|      | (b) John bought... and ... stole a bike | :생략접속문 |

자기수정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방식이 이해될 수 있다.

“이미 발화된 문장의 수정에 관여하는 화자는 아마도 원고의 편집자에 비유될 수 있다. 편집자는 이전 원고를 완전히 즉, 부적절한 부분을 새로운 텍스트로 대체하는 대신에, 단순히 포인터를 원래 원고의 정확한 부분에 위치시켜 단지 새로운 텍스트단편들을 계속 써 내려 간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된 원고는 새로운 원고와 원래 원고에 향하는 포인터간의 결합물이다.”(Kempen 1991, 351)

이러한 해석방식에 따르자면, 생략접속문의 경우 생략된 부분은 이전에 제시된 (불)완전한 문장으로부터 수정될 필요가 없는 부분의 해석을 넘겨받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지식표상이론에서는 이러한 암시적 해석방식에 대한 구체적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지닌 지식은 무질서하게 두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계적 구조하에 어떤 원리에 따라 저장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저장형태를 지닌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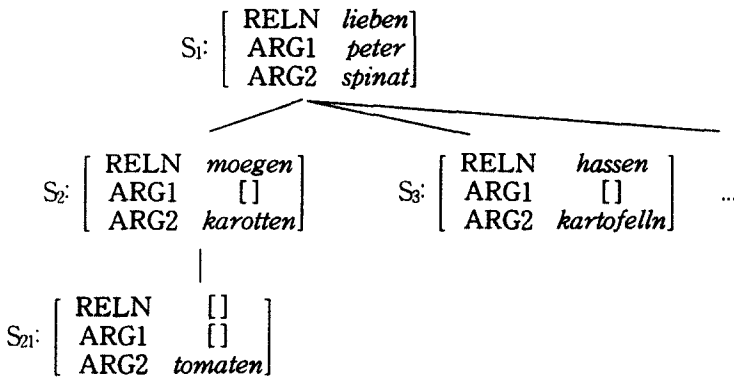
위의 위계적 구조에서 하위유형은 자신의 상위유형으로부터 자질들을 상속받아 자신의 고유한 자질과 더불어 나름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카나리안 새의 경우 구조상 새와 동물의 하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 'singt', 'ist gelb' 이외에도 상위 유형의 자질들 'hat Haut', 'hat Flügel', 'kann fliegen' 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타조의 경우, 상위 유형인 새로부터 그 자질들을 상속받기는 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 'kann nicht fliegen'으로 인해 새의 자질 'kann fliegen' 상속은 차단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디폴트 상속'을 설명하고 있다. 즉 특정 범주가 그 상위범주의 자질들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한, 상위범주의 자질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위의 이론에 비추어 생략문의 해석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하자.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순행 생략문에서는 완전한 문장이 처음에 나타난다. 이는 구조 (12)에서 상위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생략문의 경우, 구조상 앞 문장에 위계적으로 종속된 하위범주를 이루게 된다. 하위범주에 나타나는, 즉 생략문에 나타나는 표현들은 마치 타조가 '날지 못한다'의 정보를 자기 고유의 자질로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생략문 고유의 표현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위범주, 즉 앞 문장으로부터 정보를 상속받을 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보와 상충을 일으킬 때는 자신의 정보가 우위를 점하여 관련자질의 상속을 막는다. 즉 각각의 정보가 문장정보를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면, 생략문은 자신이 지닌 정보와, 디폴트 상속



에 의해 상위범주로부터 보충받은 정보의 종합으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정보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구조 (12)에 비추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13) Peter liebt Spinat und mag Karotten sowie Tomaten, aber haßt Kartoffeln.



위의 구조에서 S<sub>2</sub>의 경우, 술어와 목적어의 값이 주어져 있으므로, 상위범주 S<sub>1</sub>으로부터의 술어와 목적어 값의 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어 값의 경우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S<sub>1</sub>으로부터 상속받아, 원래의 정보들과 결합하여 'moegen(peter, karotten)' 형태의 완전한 명제를 형성한다. 그리고 S<sub>3</sub>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hassen(peter, kartoffeln)' 명제로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S<sub>2</sub>의 하위형인 S<sub>21</sub>의 경우 목적어 값만 주어져 있으므로, 자신의 상위범주 S<sub>2</sub>로부터 상속되지 않는 정보인 술어의 값을, 그리고 또 다른 상위범주인 S<sub>1</sub>으로부터 주어의 값을 상속받아, 궁극적으로는 명제 'moegen(peter, tomaten)'을 산

6) 구조 (13)에 제시된 자질구조는 이른 중립적인 의미표현 방식이다. 예를 들어 문장 S<sub>1</sub>의 의미는 술어(RELN)의 값이 lieben이고, 그 첫 번째 논항(ARG1)의 값이 peter, 그리고 두 번째 논항(ARG2)의 값이 spinat임을 표시해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술어-논항구조로 표시하면 lieben (peter, spinat) 형식에 해당한다.

출해낸다.

이상에서 우리는 디폴트상속이론에 의한 생략문 해석가능성을 추상적으로 타진해 보았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여 다양한 언어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개념규정과, 그리고 구체적인 기반문법을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ollard & Sag (1994)의 '핵심어주도 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HPSG)을 근간으로 문장정보를 표현하기로 한다. HPSG에서는 어휘나 구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속성-값의 쌍들로 이루어진 자질구조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자질구조 (14)(b)는 예문 (14)(a)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14)(a) Peter liebt Spinat.

(b)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PHON</td> <td style="padding: 5px;"><math>\langle \text{peter}, \text{liebt}, \text{spinat} \rangle</math></td> </tr> <tr> <td style="padding: 5px;">SYNSEM</td> <td style="padding: 5px;"><math>S[\text{fin}]</math></td> </tr> <tr> <td style="padding: 5px;">DTRS</td> <td style="padding: 5px;">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SUBJ-DTR</td> <td style="padding: 5px;"><math>\text{peter}[\text{nom}]</math></td> </tr> <tr> <td style="padding: 5px;">COMP-DTRS</td> <td style="padding: 5px;"><math>\text{spinat}[\text{akk}]</math></td> </tr> <tr> <td style="padding: 5px;">HD-DTR</td> <td style="padding: 5px;"><math>\text{liebt}[\text{fin}]</math></td> </tr> </table> </td> </tr> </table>	PHON	$\langle \text{peter}, \text{liebt}, \text{spinat} \rangle$	SYNSEM	$S[\text{fin}]$	DTRS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SUBJ-DTR</td> <td style="padding: 5px;"><math>\text{peter}[\text{nom}]</math></td> </tr> <tr> <td style="padding: 5px;">COMP-DTRS</td> <td style="padding: 5px;"><math>\text{spinat}[\text{akk}]</math></td> </tr> <tr> <td style="padding: 5px;">HD-DTR</td> <td style="padding: 5px;"><math>\text{liebt}[\text{fin}]</math></td> </tr> </table>	SUBJ-DTR	$\text{peter}[\text{nom}]$	COMP-DTRS	$\text{spinat}[\text{akk}]$	HD-DTR	$\text{liebt}[\text{fin}]$
PHON	$\langle \text{peter}, \text{liebt}, \text{spinat} \rangle$												
SYNSEM	$S[\text{fin}]$												
DTRS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SUBJ-DTR</td> <td style="padding: 5px;"><math>\text{peter}[\text{nom}]</math></td> </tr> <tr> <td style="padding: 5px;">COMP-DTRS</td> <td style="padding: 5px;"><math>\text{spinat}[\text{akk}]</math></td> </tr> <tr> <td style="padding: 5px;">HD-DTR</td> <td style="padding: 5px;"><math>\text{liebt}[\text{fin}]</math></td> </tr> </table>	SUBJ-DTR	$\text{peter}[\text{nom}]$	COMP-DTRS	$\text{spinat}[\text{akk}]$	HD-DTR	$\text{liebt}[\text{fin}]$						
SUBJ-DTR	$\text{peter}[\text{nom}]$												
COMP-DTRS	$\text{spinat}[\text{akk}]$												
HD-DTR	$\text{liebt}[\text{fin}]$												

속성 PHON은 예문의 음성적 실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속성 SYNSEM은 그 통사, 의미론적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간략히 정형동사가 있는 문장범주만을 담고 있다. 한편 속성 DTRS는 문장 내에 나타나는 하위 범주들의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SUBJ-DTR은 주어정보로서 1격의 Peter가, COMP-DTRS는 목적어로서 4격의 Spinat가 등장함을 말해주며, 그 문장의 핵심어로서는 동사 liebt가 나타남을 속성 HD-DTR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이러한 자질구조에 작용하는 디폴트 상속이론을 Carpenter(1993)의 디폴트상속 연산자 ( $\overset{\sim}{U}_s$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sup>7)</sup>

7) Carpenter(1993)의 디폴트 상속 연산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이해운 (1999)에서 볼 수 있다.

(15) 생략접속문의 해석원리:

완전한 문장과 생략문으로 구성된 접속문에서, 생략문의 빈자리는 다음의 연산결과치로 대체하라!

$$\text{clause}[\text{DTRS} \quad \text{const-struct}] \supset U_s \text{ non-clause}[\text{DTRS} \quad \text{const-struct}]$$

해석원리 (15)에 의해 이제 우리는 예문 (13)을 보다 형식적으로 그 해석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계산해 내어 생략문을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해 낼 수 있다. 다음은 예문 (13)의 일부분을 원리 (15)에 의한 계산한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16) Peter liebt Spinat und mag Karotten.

$$\begin{aligned} & \left[ \begin{array}{ll} \text{SUBJ-DTR} & \textit{peter} \\ \text{HD-DTR} & \textit{liebt} \\ \text{COMP-DTRS} & \textit{spinat} \end{array} \right] \supset U_s \\ & \left[ \begin{array}{ll} \text{HD-DTR} & \textit{mag} \\ \text{COMP-DTRS} & \textit{karotten} \end{array} \right] \\ = & \left[ \begin{array}{ll} \text{SUBJ-DTR} & \textit{peter} \\ \text{HD-DTR} & \textit{mag} \\ \text{COMP-DTRS} & \textit{karotten} \end{array} \right] \end{aligned}$$

즉, 생략문 내에 나타나는 정보들, 술어(HD-DTR)와 목적어(COMP-DTRS)는 고유의 자질이므로 앞 문장으로부터 상속이 차단되고, 반면에 앞 문장이 지닌 주어 정보(SUBJ-DTR)는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속받아 최종적으로 우측의 자질구조를 얻어내게 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해석원리 (15)에 관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해석원리에 포함된 디폴트 상속의 연산자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제약 없이 자유로이 작동하여 생략문을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해낸다. 그러므로, (16)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명사구의 생략문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에서 제시된 다양한 유형의 생략구문을 해석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메타적 성격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규칙이나 원리의 일반적 속성처럼, 디폴트 상속연산

자의 비제한적 성격으로 인해 비문법적인 생략문들도 해석해낼 수 있는 과잉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별 구문에 위의 해석원리 (15)를 적용할 때, 그 구문 고유의 제약들을 찾아내어 해석원리 (15)의 적용에 적절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일반 해석원리인 (15)가 명사구의 생략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을 필요로 하는지 논의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명사구생략 현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4. 명사구 생략현상

##### 4.1. 제약

독일어는 대부분의 게르만어처럼 ‘동사-두 번째 위치’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정동사는 문장 내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며, 그 앞의 위치(전장)는 요소의 문법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sup>8)</sup> 그리고 이 전장의 요소는 구어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이 종종 생략되어 나타날 수 있다.

- (17)<sup>9)</sup> (a) (Ich) bin gestern angekommen.  
 (b) (Das) kann ich leider nicht sagen.  
 (c) (Da) kannst du nichts ma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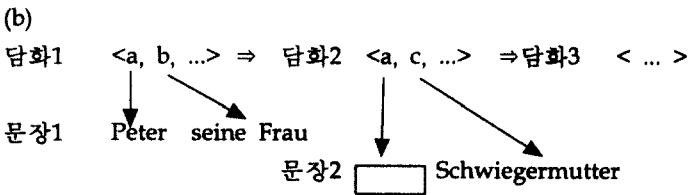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문장의 첫머리는 청자에 이미 알려진 정보, 즉 주제어가 위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제어의 생략은 의사소통시에 큰 장애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이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를

8) 독일어의 문장어순에 관한 전통적 견해로는 ‘장이론’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문장의 경우 ‘전장’·‘괄호여는 구조’·‘중장’·‘괄호 닫는 구조’·‘후장’ 순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괄호여는 구조’는 주문장의 경우 정동사의 위치를 말한다.

9) Klein (1993: 781).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등위 생략접속문에서의 명사구 생략을 이와 같이 일종의 주제어 생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등위 접속문에서 명사구 단독으로 생략되는 현상은 앞선 예들 (3)과 (4)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전장에 위치하는 명사구에 한정되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자면, 생략된 요소는 이미 앞문장에서 등장하여 청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는 정보라는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담화-문장간의 상호 대응관계로 표현해 볼 수 있다.

(18) (a) Peter schlägt seine Frau und \_ wird von seiner Schwiegermutter geschlagen.



담화란 일종의 의미론적 층위로서 개별 지시체들과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이고, 문장이란 상응하는 담화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하에서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예문 (18)(a)는 두 개의 개별적 담화를 언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b)는 이러한 두 영역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담화1에서는 두 담화지시체 a와 b가 순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는 첫 번째 문장 내에서 주어 Peter와 목적어 seine Frau로 각기 실현되어 나타난다. 다음 계속되는 담화2에서는 이전 담화에서의 지시체 a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시체 c가 도입된다. 이에 상응하는 문장형태를 표현할 때, 가장 활성화되어 계속 유지되는 지시체 a는 예문 (17)에서처럼 구태어 어휘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고, 반면에 새로이 도입된 담화지시체 c는 어휘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sup>10)</sup> 이상에서 우리는 생략된 명사구는 이전 문장에서 가장

활성화된 담화지시체에 해당되는, 즉 화자에게 충분히 알려진 정보이므로 구태여 어휘형태로 표현될 필요가 없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해석원리 (15)가 명사구의 디폴트 상속에 관여할 때 가해질 수 있는 제약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형식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19) 명사구 생략에 대한 제약:

명사구 생략에 있어서, 디폴트 상속된 정보는 이전 문장 내에서의 가장 활성화된 담화지시체에 해당한다.

다음에는 상위의 해석원리 (15)와 그 한 제약인 (19)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명사구 생략을 해석해 내고 있는지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4.2. 분석

명사구 생략현상의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서는 생략된 명사구가 앞 문장 전장에 위치한 주어에 해당되는 (3)(a)와 같은 예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어는 무표적 주제어로 간주되어, 문장 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담화지시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생략원리 (15)에 의해 주어 Peter가 생략문에 디폴트 상속되는 것은 제약 (19)를 준수하여 올바른 의미해석을 얻는다.

- (3) (a) Peter liebt Spinat und \_ mag Karotten.  
 (b) Den Staatschef begrüßt der Kanzler und \_ befragt der Reporter.

---

10) 주제어 중심의 언어인 한국어나 중국어 등의 경우, (18)(b)의 담화2에 나타나는 지시체 a는 언어적으로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최근 이론으로는 'centering theory'를 들 수 있다.

- (c) Der Suppe fehlt das Salz und \_ täte weniger Wasser gut.

한편, (3)(b)(c) 문장들은 무표적 어순에 비해 전장의 요소가 담화 상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주제화 구문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장의 각 요소들(den Staatschef, der Suppe)이 생략원리 (15)에 의해 디폴트 상속될 경우 제약 (19)를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표적인 (3)(a)의 경우 빈자리를 상응하는 대명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3)(b)(c)에서는 그런 대명사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어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 (20) (a) Er ging nach Hause.  
 (b) \*Mich haben sie gesehen.  
 (c) IHN schlugen die Haescher in Bande.

일반적으로 (20)(a)(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명사는 주어를 제외하고는 전장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강세를 받아 초점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20)(c)와 같이 가능하다. (3)(b)(c)에 주어진 정보들은 강세가 없는 주제정보이므로 대명사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담화지시체의 활성화 정도를 반영한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예문들의 상이한 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 (21)<sup>12)</sup> (a) Es stand gestern ein Mann<sup>1</sup> vor der Tür und \_<sub>1</sub> bat mich um eine Zigarette.  
 (b) \*In Hamburg hat es<sup>1</sup> gestern geregnet und \_<sub>1</sub> wird in Kalifornien schneien.

11) Lernerz (1977: 37) 참조.

12) (21)(a)는 Wilder (1995: 33)에서, (b)는 Brandner & Fanselow (1990)에서, 그리고 (c)는 Kathol (1993: 148)에서 따옴.

- (c) <sup>7</sup>Die Tasche ließ er<sup>1</sup> fallen und \_ rannte zum Hinterausgang.

예문 (21)(a)의 경우, 상속원리에 의해 첫 번째 문장의 주어인 허사 es와 ein Mann이 디폴트 상속의 후보자가 된다. 그러나 허사 es는 전장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사의 속성상 어떤 담화지시체에도 해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ein Mann이 첫 번째 문장에서 표현된 가장 활성화된 담화지시체로서 생략문의 빈자리로 디폴트 상속되어 올바른 해석을 얻어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21)(b)에서는 상속원리에 의해 주어인 허사 es가 디폴트 상속되지만, 이 허사는 그 속성상 아무런 담화지시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약 (19)를 어겨 비문법적이 된다. 그리고 (21)(c)의 경우, 우리는 상속원리에 의해 주제화 목적어 die Tasche와 주어 er의 두 가지 디폴트 상속가능성을 갖게 된다. 제약 (19)에 의해 주제화구가 디폴트 상속되면 상속문의 술어 rannte와의 일치문제로 인해 의미해석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인 주어의 디폴트 상속이 진행되어 올바른 문장해석을 얻게 되지만, 예문(3)과 비교하여 보면, 한번의 디폴트 상속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장을 즉각적으로 문법적이라고 판단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어 결국은 약간 어색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sup>13)</sup>

- (22) (a) \*Die Unterlagen brachte ich ins Büro und \_ zeigte \_ den Kollegen.  
 (b) \*Die Briefmarken zeigt Karl dem Onkel und \_ bietet \_ zum Verkauf an.

위의 예문들에서는 두 개 이상의 명사구 생략을 볼 수 있다. 제시된 해석원리 (15)와 명사구 제약 (19)에 의해 각 문장의 올바른 의미해석을 얻어낼 수는 있지만, 앞의 단순한 예들에 비해서 두 번 이상의 상

13) Höhle(1983) 참조.



속과정의 반복으로 그 해석과정 내지 인지적 처리과정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므로 우리는 이를 비문법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 5.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생략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방법인 디폴트 상속 이론을 제안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독일어의 등위접속문에 나타나는 명사구 생략현상을 다루어 보았다. 끝으로 본 논문의 연구의의와 그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디폴트 상속이론은 그간 제안된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특정 이론에 의존하는, 즉 이론 내적 제안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처리과정을 반영한 범이론적 제안이다. 그러므로 본 이론은 독일어에 한정되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sup>14)</sup>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명사구의 생략현상뿐 아니라, (4)에 제시된 등위 접속문에서의 다양한 생략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sup>15)</sup> 이외에도 디폴트 상속이론은 문장들간의 구조적 위계성만을 전제로 하고 특정 구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등위 접속문뿐만 아니라 다른 구문에서 나타나는 생략현상에도 그 적용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3)(a)의 비교구문에 나타나는 생략현상이 라든지, 혹은 (23)(b)에서 보여주고 있는 질의-응답구문에서의 생략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23) (a) Maria läuft schneller als Fritz ...

(b) A: Wer hört hier wen?

B: Ich \_ den Hans.

14) 이해윤(1999)에서는 제안된 디폴트 상속이론에 의거하여 영어의 동사구 생략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명사의 중의적 해석문제를 다른 이론에 비해 잘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5) 이에 대한 전반적 분석은 Lee(1998)을 참조.

다른 한편, 문장 접속문을 일종의 담화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는 디폴트 상속이론은 순전히 담화상에서 나타나는 생략현상들 ((24)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즉, 의사소통의 기본단위로서 명제를 가정한다면, 담화 상에서 발화되고 있는 단편적인 문장조각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명제로 구성되어 청자에 이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문맥적 정보들이 명제형태로, 구체적으로 (14)(b)에 제시된 자질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에 해석원리 (15)와 나름의 제약을 설정하여 다음의 다양한 단편적 문장조각들을 완전한 명제로 해석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 |      |  |       |
|------|--|-------|
| (24) | (a) Tür zu!                            | :명령문  |
|      | (b) Stuttgart 14 Km.                   | :안내판  |
|      | (c) Temperaturen nah dem Gefrierpunkt. | :일기예보 |

### 참고문헌

- 이해운. 1999. VP-생략구문의 해석: 디폴트 상속이론을 기반으로. 언어와 정보 3-1, 21-37.
- Brandner, E. & G. Fanselow (1990). German as a pro-drop language. Ms. Uni. Passau.
- Carpenter, B. (1993). Skeptical and Credulous Default Unification with Applications to Templates and Inheritance. In: T. Briscoe et al. (Hgg.). *Inheritance, Defaults,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37.
- Günther, U. et al. (1993). Elliptische Koordination. Strukturen und Prozesse lokaler Textkohärenz. In: *Linguistische Berichte* 146, 312-342.
- Höhle, T. (1983). Subjektlücken in Koordination. Ms. Uni. Tübingen.
- Kathol, A. (1993). Linearization and Coordiantion. In: A. Kathol & C.

- Pollard (Hgg.). *Papers in Syntax*. The Ohio State Uni., 117-152.
- Kempen, G. (1991). Conjunction reduction and gapping in clause-level coordination. In: *Computational Intelligence* 7, 357-360.
- Klein, W. (1981). Some Rules of Regular Ellipsis in German. In: W. Klein & W. Levelt (Hgg.). *Crossing the Boundaries in Linguistics*. Dordrecht: Reidel, 51-78.
- Klein, W. (1985). Ellipse, Fokusgliederung und thematischer Stand. In: R. Meyer-Herman & H. Rieser (Hgg.). *Ellipsen und fragmentarische Ausdrücke*. Tübingen: Niemeyer, 1-24.
- Klein, W. (1993). Ellipse. In: J. Jacobs et al. (Hgg.). *Syntax*. Berlin: de Gruyter, 763-799.
- Kohrt, M. (1976). *Koordinationsreduktion und Verbstellung in einer generativen Grammatik des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 Lappin, S. (1996). The Interpretation of Ellipsis. In: S. Lappin (Hg.).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Oxford: Blackwell, 145-175.
- Lee, H.-Y. (1997). NP-ellipsis in german coordinate sentences. In: *Proceedings of the 4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s*. Seoul. 184-193.
- Lee, H.-Y. (1998). *Ellipsen in Satzkoordinationen*. Frankfurt a. M. et al.: Peter Lang.
- Lenz, J. (1977). *Zur Abfolge nominaler Satzglieder im Deutschen*. Tübingen: Gunter Narr.
- Oirouw, R. v. (1987). *The Syntax of Coordination*. London: Croom Helm.
- Pollard, C. & I.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Stanford: CSLI.
- Sag, I. A., G. Gazdar, T. Wasow & S. Weisler (1985). Coordination and How to Distinguish Categories. I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 117-171.
- Wilder, C. (1995). Some properties of Ellipsis in Coordination. Ms. Berlin.

Abstract

## On the ellipsis of noun phrases in German

Hae-Yun Lee

In this paper, I have handled NP-ellipses which are supposed to result from the principle of economy. After criticizing two previous approaches, i.e. a deletion- and a copying approach, I have presented a new approach, which makes elliptical phrases interpret as perfect propositions. This so-called default-inheritance system, the concept of which is borrowed from the self-repairing and Knowledge Representation, consists of a hierarchically structured representation and a default-inheritance mechanism. According to the system, an elliptical sentence is structured under a normal sentence, and the highest ranked sentence inherits information to the lower ranked defective sentence. So, an elliptical sentence is interpreted as a combination of the inherited and the inherent information.

On the ground of the formalized default-inheritance system, I have found the constraint which works on the NP-ellipsis in German. That is, the element to be inherited must correspond to the most prominent referent in discourses. By mean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ystem and the constraint, I have explained the various phenomena of German.